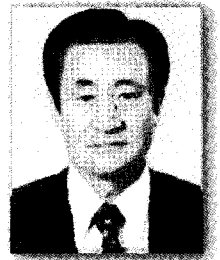


# 소나무의 전정 및 수형 만들기 ②

## - 개요 -



1. 수형의 해설과 종류
2. 수형만들기의 예찰
  - (1)모양목 만들기
  - (2)모양목 가지배열 예
3. 소나무 전정하기
  - (1)소나무의 맹아력
  - (2)소나무의 전정시기
  - (3)소나무의 전정



이상웅 | 부회장  
(사)한국조경수협회

### 3. 소나무 전정하기

#### (1) 소나무의 맹아력

소나무는 맹아력이 매우 강하다.

다시 말하면 소나무 잎이 있는 곳에서만 잘라주면 새싹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잎이 없는 곳에서 잘라주면 새싹이 전혀 나지 않아 그 가지는 죽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아래 그림 「새싹의 발생」에서 절선 A에서 자른 것과 절선 B에서 자른 것은 새싹 나오는 기간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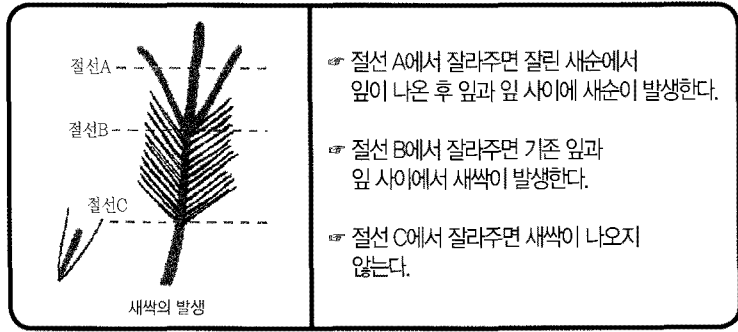
즉, 절선 A를 자르면 새순에서 잎이 나온 후에 새싹이 발생하게 되고 절선 B를 자르면 기존에 있던 잎에서 즉시 새싹이 나오게 된다.

A부분을 자르는 것과 B부분을 자르는 것은 약 1.5개월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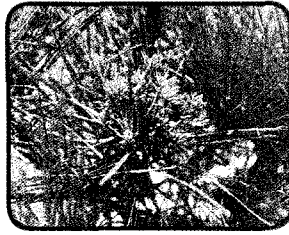
새싹이 몇 개 정도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세력이 매우 강하면 거의 모든 잎에서 발생하게 되고 세력이 약하면 새가지 수가 적게 발생하게 된다.

그림 「새싹의 발생」에서 새로 나온 새순을 따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새싹이 솔잎과 잎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을 따준 부위에서 매우 여러 개의 눈이 발생하여 성장하게 된다.



신초 자르기(3cm)



새잎 발생



가지 발생

## (2) 소나무의 전정시기

소나무의 전정시기도 다른 수목의 전정시기와 특성이 다를 바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정 및 순파기를 해주어 솔잎이 좀 짧고 여러 섬세한 가지를 발생시키며 죽은 잎을 털어주어 가며 가지를 섬세하게 손질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가장 알맞은 시기는 소나무의 새순이 쥐꼬리처럼 자라 길이 생장이 거의 끝나고 그곳에서 새 솔잎이 3~4mm나기 시작하였을 때가 연중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경이지만 그 해의 기온 차에 따라 며칠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솔잎이 발생하는 상태를 보아 작업시기를 결정한다.

수목을 많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큰 가지치기, 가지유인 등은 휴면기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세밀한 손질을 이 시기에 실시하여도 좋다.

해송에서 좀 늦게 6월 말, 7월 초에 순파기를 해주고 묵은 긴 잎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조경수 재배에서는 인건비 관계로 어렵고 이에 미치지 못한다.

## (3) 소나무의 전정

소나무의 아름다움과 멋진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매우 늙은 노송에서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이 어떠한 점에서 운치가 있어 보이며 감동을 주는가를 찾아내어 실제에 재현하도록 한다.

### ① 가지관의 생김새

가지관의 생김새 그 중요한 요인을 찾아 내보면 가지 하나하나가 둥근 형태가 아니고 얇으며 퍼진 형태이어야 한다.

가지의 관을 둥글둥글하게 깎아 수박덩어리가 매 달린 것처럼 만들면 일본향(가이즈까)모양으로 되어 운치있는 노송의 형태를 재현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지의 관을 얇게 퍼주어야 한다.

### ② 잎의 길이

소나무의 잎은 짧으며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아름답다.



가지의 관이 얇은 소나무

잎의 길이는 전정에 의한 것보다는 거름주기에 의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 하겠다. 퇴비 및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이 매우 비옥하여진다. 따라서 나무의 세력이 강해져서 잎의 길이도 매우 길어진다. 소나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종에서도 그러하겠지만 나무의 세력과 잎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 하겠다.

소나무의 잎이 길면 모양은 좋지 않으나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에도 강해진다. 세력이 약하면 잎은 짧고 복잡하지 않아 관상 가치는 좋으나 성장과 병충해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도 분재에서 분재 소재의 관리기간과 작품화 되었을 때의 관리를 나누어 생각한다.

즉, 재배과정에서는 거름을 충분히 주어 근경과 수고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며 성목을 옮겨 감상시기로 들어가면 거름을 주지 않든가 양을 적게 조절하여 잎을 짧게 하여준다. 그러면 솔잎의 길이도 짧고 색깔도 연초록에 가깝게 되어 정감을 이루는 감상하기 좋은 형태로 된다.

따라서 분재라면 다르겠으나 조경수 재배에서 전정으로 잎의 길이 및 단엽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하겠다.

### ③ 수형에 따른 손질방법

소나무에도 수형 형태와 유전적 형질에 따라 손질방법이 다르다.

수형은 대개 형질에 따라 이루어지나 형질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형태에 따라 전정방식이 달라진다.

소나무는 원래 적응을 말하는 것이며 소나무 안에 유전적 형질이 다른 수피가 붉은 강송, 여러 가지로 키가 커 올라간 다행송(多行松), 키가 크지 않고 둥근형을 이루는 반송(盤松)이라 한다.

반송은 지하고가 없이 수관을 형성하였고 다행송은 키가 올라가 수관을 형성하였다. 반송을 자라는데로 밑가지를 잘라주면 다행송의 형태가 된다.

반송과 다행송은 어느 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냐 하는 것은 서로의 식재 장소, 개인의 취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다행송은 거의 중점적으로 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송 재배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행송의 형태로 전정을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니다.

전정의 실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규격이 얼마만한 나무를 만들 것인가를 구상한다.

(나) 지하고는 어느 길이로 할 것인가? 반송이 아닌 경우 지하고가 너무 짧으면 나무가 답답하고 웅졸한 나무 형태가 될 염려가 있다.

(c) 굵은 가지 중 필요없는 가지는 없는가를 확인한다.

(e) 잘라내리는 가지와 잎은 전정하는 전체나무에 몇 %가량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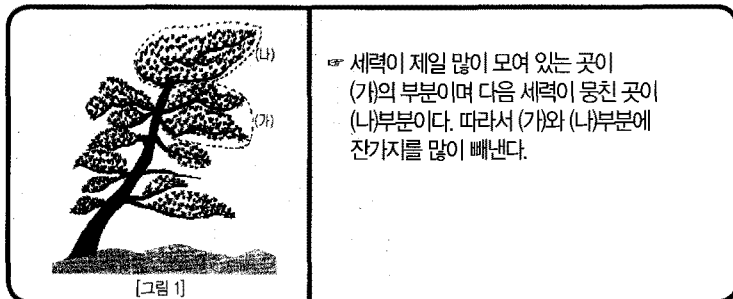
전정을 한다하는 자체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전체의 2/3가 초과되면 성장에 매우 좋지 않다.

(d) 나무세력이 어느 부위에 몰려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곳의 가지를 많이 빼내어 다른 부위와 같도록 일정하게 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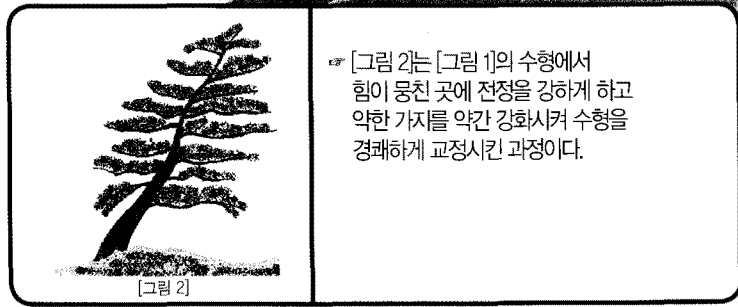
즉, 세력이 몰려있다 하는 것은 가지의 관이 특별히 큰 곳과 잔가지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말한다.

(b) 가지관의 크기를 거의 같게 하여 주되, 가능하면 밑가지의 가지관이 약간 크게 하여준다.

(s) 둥근 소나무에서 매년 전정을 하여주든 전년도에 전정하던 형식에 따라 전체의 가지량에 1/3~1/4 정도를 빼내면 된다.



☞ 세력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가)의 부분이며 다음 세력이 뭉친 곳이 (나)부분이다. 따라서 (가)와 (나)부분에 잔가지를 많이 빼낸다.



- 등근 소나무의 전정에서 계속 성장시켜야 할 나무는 가지의 끝눈을 전부 자르지 말고 너무 길게 성장한 가지, 너무 속으로 피압된 가지, 꼬인가지 등을 뽑아내어 원줄기(수간)와 가지가 약간씩 보이도록 하여준다.
- (o) 2~3년 전정을 해주지 못하여 너무 흐트러진 수형은 어디에서 보아도 균형이 잡히도록 양손가위로 쳐서 균형을 잡은 후 잔가지를 정리하여 뽑아준다.
  - 반송이나 다행송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줄기의 곡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곡을 너무 많이 넣지 말아야 하겠다.
  - 곡을 넣지 않는 방법은 너무 길게 자라는 가지면 빼주고 길이가 일정한 것들의 정상적 눈에서 자라도록 생장시키면 여러 줄기가 직선으로 성장하게 된다.
  - (z) 지상 처음부터 여러 줄기로 자라 수형이 형성된 수목은 밑의 여러 가지의 굵은 정도가 같아야 모양이 좋다. 따라서 굵은 가지는 가지를 많이 쳐주고 가는 가지는 잎 수가 많도록 전정한다.
  - 또한 처음부터 줄기가 너무 여러 개이면 이도 부담스러워 5개 혹은 7개 정도가 알맞다.
  - 나무에 있어서 가지의 관은 큰 가지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큰 가지가 다시 작은 가지로 분류되어 적은 가지관들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소나무는 어느 형태의 가지관이 모여 수관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이 달라지고 또한 수종별, 수목의 크기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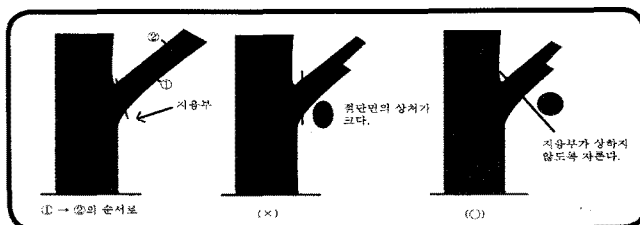
(x) 소나무 산채목의 전정

수목을 옹기려면 건강하던 뿌리를 끊어 뿌리의 양은 매우 적어지고 그 작용도 매우 약하여 적은 뿌리로 나무 전체를 살리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뿌리가 약해진 양만큼 지상 위의 줄기도 그 양이 적어져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 없는 큰 가지를 잘라내고 잔가지도 전체양의 1/2~1/3 정도는 속아서 잘라내야 한다.

그 요령은 산채목은 3년 후에 정상적으로 보기 좋은 수관이 되므로 3년후에 남겨둔 작은 가지가 작은 가지관을 만들어 수관을 이룰 수 있도록 전정한다.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 ① 자르려는 가지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위로 10~15cm되는 곳의 아랫부분에 굵기의 1/3정도 깊이까지 톱으로 자른다.
- ② 톱을 돌려 아랫부분의 자른 위치보다 약간 윗부분을 자르면 주간(主幹)에 상처를 내지 않고 굵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③ 절단 후 남겨진 부분은 지용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절단면이 최소가 되도록 위로부터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자른다.
- ④ 상처 부위는 도포제(발코트)를 바른다.





가지 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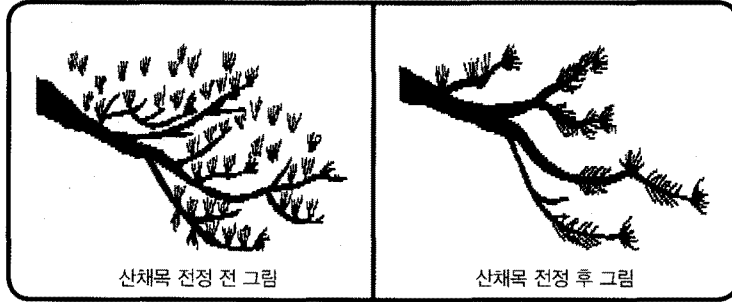
자르기 후



자르기 후



자른 후 아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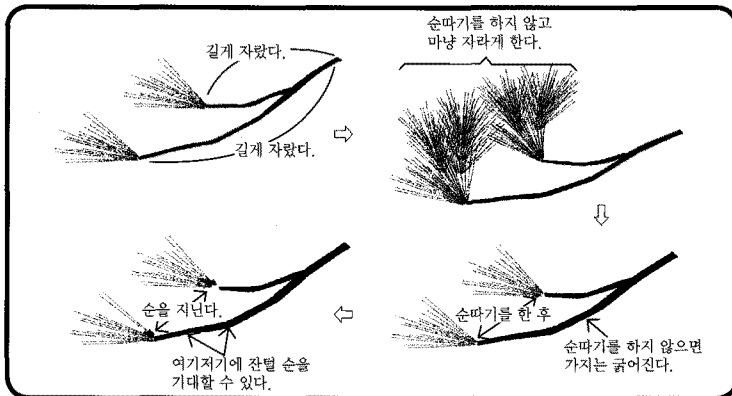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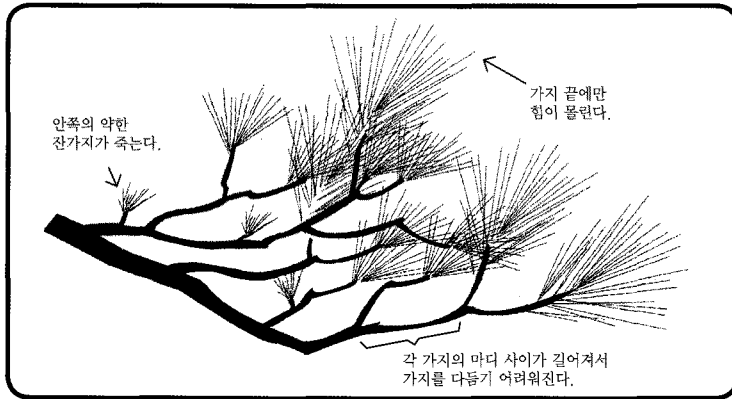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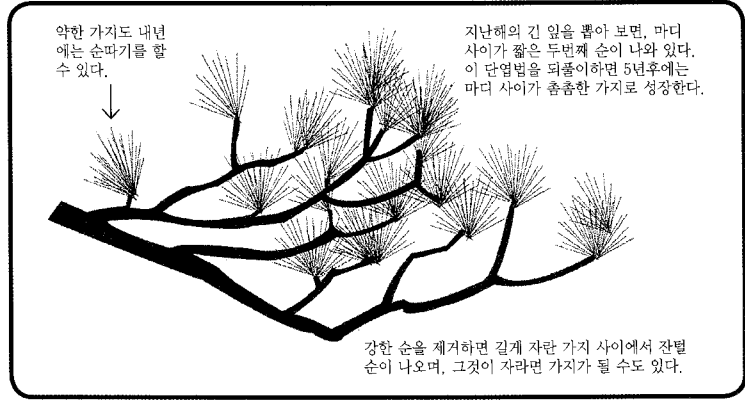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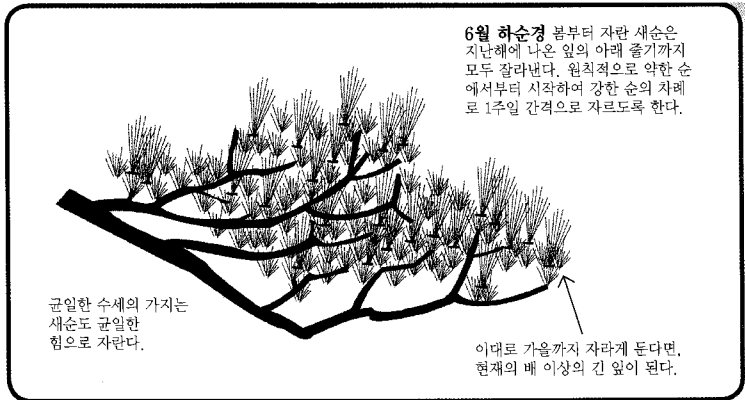
산채목 전정 전 그림

산채목 전정 후 그림

(ㄴ) 기존 관상하는 소나무의 가지 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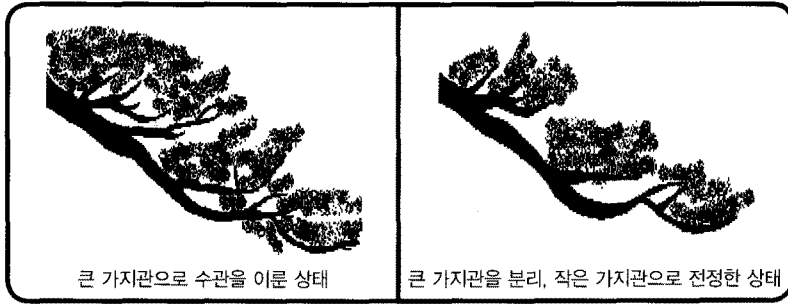
조경을 하여 현재 관상하고 있는 소나무가 잎이 길고 가지가 많으면 원래 소나무로서의 운치와 자태가 나오지 않으므로 잎은 짧게 관리하고 잔가지는 솥아내어 나무의 속 줄기가 보이도록 해 주어야 소나무의 아름다움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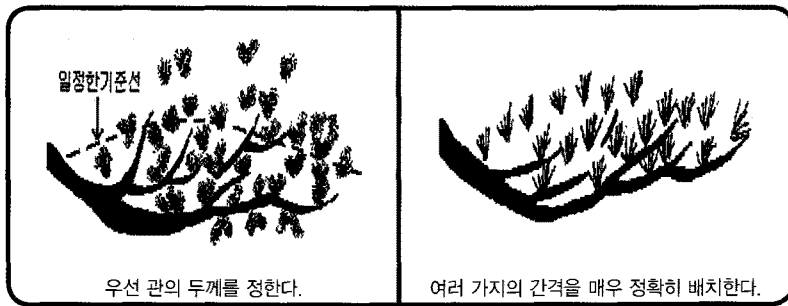
묵은 가지 및 잎따기

따라서, 큰 가지가 이룬 가지관은 좀 작은 가지관으로 분리하여 준다. 그 크기가 일정하도록 분리하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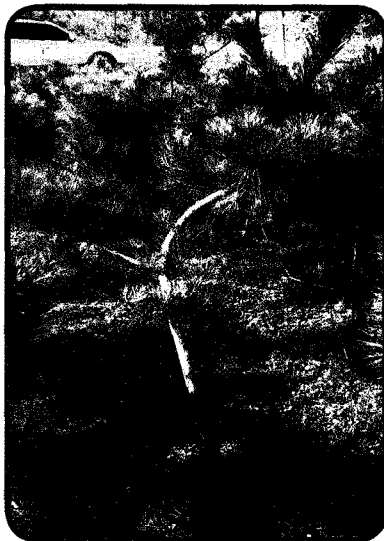


(ㄷ) 가지관 만들기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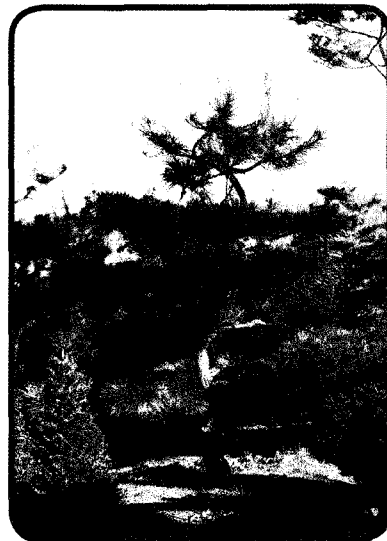
우선 가지관의 두께를 결정하고 위의 가지관 위에 일정한 선을 정한다. 다음에는 배 열되는 작은 가지들의 순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지의 관이 얇은 것이 좋고 너무 두텁고 둥글면 향나무 모양이 나와 좋지 못하다.



약 2m가량 났을 때 첫 곡을 넣은 모습



첫 곡을 넣고 몇 년 경과한 모습



꼭을 몇 회 낸 후 가지 정리한 상태



꼭이 잡혀 완전 수형이 되어가는 상태



전정 및 가지 잡기를 해야되는 수형

- 다음호에 계속 -